

# “제주신화에 여성시대 출현 값진 역사 담겨”

### 양영수 제주대 명예교수 ‘제주신화 현대적 활용...’ 그리스신화와 비교 연구 “존엄하고 당당한 여성 등 휴머니즘적 페미니스트”



양영수 제주대 명예교수.

제주신화의 특징인 ‘휴머니즘적인 페미니스트’의 출현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특별연구위원인 양영수 제주대 명예교수가 최근 제주학 연구센터 지원을 받아 수행한 ‘제주신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연구-그리스신화의 경우와 비교하여’ 주제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영문학 전공자로 앞서 제주도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 신화와 그리스 신화의 비교연구’ 학술 논문 등을 발표했던 양 교수는 이번에 제주신화를 모티브로 활용한 문예창작 사례들을

과 보조를 갖춘 ‘제주신화 친숙화 운동’을 제시했다. 그리스 아테네처럼 거리 명칭, 간판, 관광코스 안내 홍보물에 제주어가 맛깔스럽게 사용되는 제주신화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신화 해석에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그리스신화의 생성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신화 작가 호머의 사례를 들며 “중요한 것은 어느 쪽 신화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느냐 하는 것이지 어느 쪽이 더 순수한 신화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했다.

제주신화의 태생적 한계인 ‘단편 서사구조’를 벗어나 ‘중층적 서사구조’의 역동성을 구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주신화에서 단편 서사구조와 열린 서사구조의 중층적 구성을 보이는 이야기로 천치왕본풀이에 나오는 형제 간 다툼, 삼공본풀이에 나오는 형제장가 등을 지목하며 “공동체가 요구하는 인간의 도리와 자신의 개성적인 욕구를 모두 아우르는 중층적인 서사구조는 진실되면서

도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구성의 원리를 충족시킨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특히 제주신화에 담겨진 지역적 역사성이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남성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존엄하고 당당한 사랑의 기회를 찾는 제주신화 속의 여성들이 앞날을 비출 수 있다는 그는 토산리 일렛당 본풀이, 김녕 깨내깃당 본풀이, 서귀포 분향당 본풀이 등에 그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세계역사상 여성시대의 출현을 여타 지역보다 앞서 거쳤고 그런 값진 역사를 신화 이야기 속에서 아름답게 재현한 지역이 바로 제주도”라는 양 교수는 “제주신화 속 여성들은 현대적인 페미니스트이면서도 사랑과 행복의 기회를 다른 여성과 공유하는 따뜻한 휴머니즘의 면모도 보여준다”며 “바로 이 점이 제주신화가 세계사적인 남녀 간 상상시대의 출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결론지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고재만의

### 제주어기림환관

<240>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곱맨. “아오들이 모롤카루 뿔이레 간계 무신 일 신가? 어멍 허연 안 오람신고? 날 즈물암신디 하영 늦었져. 아고, 저디 오람신게”  
곱맨이 곱맨. “하영 지드립데강? 오맹이가 송애기 득련와부남마춤”  
오맹이 곱맨. “하르바지, 저 알가름 사는 덕보가 송애기 잘 질루련 허멍주 난 곳언 왓수다. 이거 봅서. 송애기 잘도 아깝지양?”  
하르바지 곱맨. “기여, 잘도 아까운게. 우리 췌가 벗이 선 좋으큰게”  
오맹이 곱맨. “하르바지, 아이 뿔이엔 볼로코마춤? 일름 허나 지와춤서”  
곱맨 곱맨. “송애기 일름 이저사 꿌카냐? 느가 곱오라 보게.”

### \* 제주어 풀이

- \*아오들이 : 아이들이다.
- \*모롤카루 : 메밀가루.
- \*날 즈물암신디 : 날이 어두어지는데.
- \*하영 늦었져 : 많이 늦네.
- \*저디 오람신게 : 저기 오고있구나.
- \*하영 지드립데강? : 많이 기다렸어요?
- \*오맹이 곱맨 : <이름>한 마을 앞에서 편의상 ‘아랫쪽 동네’로 나눠 부르는 말.
- \*잘 키우련 : 잘 키우라고.
- \*이거 봅서 : 이것을 보세요.
- \*잘도 아깝지양? : 많이 아깝지않?
- \*췌 : <이름>소.
- \*이저사 꿌카냐? : 있어야 되겠냐?
- \*곱오라 보게 : 말 해보라.

고재만 화백

## 물방울로 고통 견딘 구도의 나날들

### 김창열미술관 소장품전 ‘물방울의 변주’ 5월까지 미공개작 포함 17점 전시



김창열의 ‘물방울’ (1990). 이번 전시를 통해 일반에 처음 공개하는 소장품이다.

지난 1월 영면에 든 ‘물방울 화가’ 김창열(1929~2021). 한국전쟁 시기에 제주와 인연을 맺은 그의 예술세계를 담아 2016년 9월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문을 연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물방울의 변주’란 제목으로 이달 2일부터 사후

첫 기획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김창열 화백의 도전 정신에 대한 헌사의 의미로 준비됐다. 안락함에 취하지 않고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던 화가의 집념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전시장에는 미술관 소장품 중에서 골라낸 17점이 나왔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물방울 작품을 포함 1970년대부터 2004년까지 제작된 대작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김 화백은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물방울을 화폭에 붙잡아 영원의 대상

으로 변화시켰던 작가다.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배웠던 천자문을 결합하거나 신문의 지면과 활자를 활용해 물방울을 표현했다. 나무판 위에도 그가 그린 물방울이 맺혔다.

화가로서의 생애 대부분을 물방울 작업에 매달렸던 그에게 물방울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였다. 고인은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야 했고, 한국전쟁 중에 친구 절반이 목숨을 잃으며 겪은 크나큰 아픔을 물방울로 씻어냈다.

전시는 5월 23일까지 계속된다. 코로나 여파로 매주 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차별 12명 이내로 관람 인원을 제한했다. 관람 신청은 미술관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 해야 한다. 문의 710-4150. 진선희기자

## 문화가 쏙지

### 제주아트센터 사용료 감면

제주 지역 공공공연장 중 하나인 제주아트센터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에 따라 공연장(대극장) 사용료 감면에 나선다.

감면 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이 1단계로 낮아질 때까지로 제주아트센터 사용 허가를 받은 예술인(단체)을 대상

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산출 사용료 중에서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준다. 제주아트센터 측은 “공연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료 감면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에는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코로나 여파에 따른 직극행정 시책으로 대관료 50% 감면을 실시했다.

### 해녀박물관 소원지 쓰기

제주시 구좌읍에 들어선 제주도 해녀박물관이 입춘 날인 2월 3일부터 정월대보름인 2월 26일까지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녀박물관에서 소원을 빌어보세요’란 이름을 단 이번 체험 행사는 입

춘과 설, 정월대보름이 이어지는 이 기간에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로비에서 새해맞이 소원지를 써서 야외광장 소나무에 직접 매달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박물관 관람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시간당 30명만 가능하다. 소원지 쓰기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문의 710-7770.

## 도시재생 문제 지역민과 함께 고민

###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상반기 도시재생대학 개설

제주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민과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이 개설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2021년 제주도 상반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민 스스로 도시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보는 도시재생 기본 교육과정으로 마련됐다.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론과정, 현장답사, 문제

해결 워크숍 등 총 9강으로 짜여졌다.

이론 과정은 ‘제주의 도시, 그리고 도시재생’(제주대 건축학과 김태일 교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정책의 이해’(LH도시재생지원기구 이상준 선임연구원),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재생’(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송창운 이사장)에 대한 강의를 예정되어 있다. 문제해결 워크숍은 도시재생지역 현장답사와 자원 발굴, 도시재생사업 기본 구상 등으로 구성됐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으로 이달 까지 참가자 접수가 이뤄진다. 제주시 용담1동 지역민에 대해 우선 접수한다. 문의 727-0617. 진선희기자

www.jeuwelling.com

해녀영양식

제주해녀들이 직접 만든

# 해삼몸국

해삼몸국은 해녀들이 영양식으로 드시던 비법 그대로 제주전통방식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조리방법**

- 전자레인지 조리시**  
해동 후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넣어 전용 덮개 또는 랩을 씌워 약 4분(700W 기준) 데워 드시기 바랍니다. \*1KW 기준 3분
- 냄비 조리 시 (직접 가열 시)**  
해동 후 개봉하여 냄비 뚜껑에 부은 후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간이 되어 있으니 기호에 맞게 양념을 더 넣어 드세요 오래 끓이면 짭 수 있으니 조리시간을 준수하여 주세요
- 중탕 조리시**  
해동 후 끓는 물에 제품을 봉지째 그대로 넣고 약 3~4분간 더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 끓는 물 중탕 조리 시 제품이 터질지 모르니 냄비의 뚜껑을 닫지 마십시오.

※ 개인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와 대파’, ‘후추를 넣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해삼몸국은 이런 분들이 드시면 특히 좋아요!

-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험생**
- 어머니가 차려준 집밥을 그리워하는 **혼밥족**
- 요즘 들어 부쩍 입맛이 없어하는 연로하신 **부모님**
- 면역력 높이는 특별 영양식을 선호하는 **미식가**

소비자 상담실 064-725-1100

제조 판매인 **신한에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죽성서길 7-10